

(財)東亞文化研究院 地表調査報告書 第32輯

사천시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5. 8



(財)東亞文化研究院
Foundation of East-Asia Cultural Institute

目 次

I. 조사개요.....	3
II. 역사·고고학분야의 조사.....	4
1. 사천시의 자연·인문 환경.....	4
2. 사천시의 역사적 환경.....	5
(1) 사천시 역사 개요.....	5
(2) 사천시 역사관련 문헌자료.....	9
3. 조사대상지역 개관.....	14
4. 주변유적.....	16
(1) 埋香岩刻(사천시 향촌동 산 64-1번지).....	16
(2) 향촌동 유물산포지 I.....	16
(3) 향촌동 유물산포지 II.....	16
(4) 향촌동 金海金應奉孝行碑(사천시 향촌동 산 52-1번지).....	16
(5) 향촌동 金公孝行碑(사천시 향촌동 산 52-1번지).....	17
(6) 사등동 고분군.....	17
(7) 사등동 토기산포지.....	17
(8) 사등산성(사천시 사등동 산 38-1번지).....	17
III. 조사내용.....	18
IV. 조사단 의견.....	19
참고문헌.....	21
圖 版.....	25

圖 面 目 次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0).....	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2
도면 3. 조사대상지역 지적도.....	21

圖 版 目 次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동→서).....	25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남→북).....	25
도판 3. 조사대상지역 전경(서→동).....	26
도판 4. 조사 광경(서→동).....	25
도판 5. 조사대상지역 부분 전경(서→동).....	27
도판 6. 조사대상지역 부분 전경(동→서).....	27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I. 조사개요

우리 연구원은 (주)남일대 리조트가 시행하는 사천시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하여 시행사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 당 사업구간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뢰받고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는 사업구간 전구간 및 주변지역까지의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고문헌조사 및 기준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와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지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신용민(동아문화연구원 고고역사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임동재(동아문화연구원 조사과장)
 - 조사원 : 조상훈(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이정원(경상대학교 건축사 연구실)
 - 조사보조원 : 이나경(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 총조사기간 : 2005. 7. 25 ~ 2005. 8. 10
 - 예비조사 : 10일
 - 현장조사 : 2일
 - 자료분석·정리, 보고서 작성 : 15일

- 조사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산49-1 일원

- 조사면적 : 20,739㎡(약 6,274평)

- 의뢰처 : (주)남일대리조트

II. 역사 · 고고학분야의 조사

1. 사천시의 자연 · 인문환경

사천시는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지리산과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고대 浦上八國의 하나였던 史勿國이 있었던 곳이라 오랜 역사를 지닌 고장이다. 인접하고 있는 市·郡으로는 동쪽으로 고성군, 서쪽으로 하동군, 남쪽으로 남해군, 북쪽으로 진주시와 접하고 있다. 사천시의 수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동단은 정동면(동경 128°10')이며, 서단은 곤명면(동경 127°55')으로 동서간의 거리는 약 27.9km이다. 그리고 남단은 동서동(북위 34°51')이며, 북단은 곤명면(북위 35°10')으로 남북간의 거리는 32.0km에 이르며, 총면적은 396.98km²를 차지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사천시는 소백산맥의 지맥이 여러 갈래로 뻗어내려 그렇게 평탄한 편은 아니다. 이 지맥들은 다시 남쪽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낮아지다가 말단에 이르러서는 바다(남해)로 이어져 리아스식 해안을 이룬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으로는 臥龍山(799m)·興霧山(455m)·理明山(570m)·鳳臺山(409m) 등이 있다.¹⁾ 사천시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형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남쪽에 위치한 泗川灣이 내륙 깊숙이 만입하여 동·서부(사천지역과 곤명지역)로 구분 짓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동부에 해당하는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은 원래 泗川縣(또는 郡)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와룡산이 가로놓여 남쪽에 있는 여러 洞지역과 북쪽에 위치한 다른 面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지맥이 남서쪽으로 이어지다가 평탄한 저지대를 이루며 남해와 연결하고 있으며, 그 말단에는 角山(398m)이 솟아 있다. 그리고 서부에 해당하는 축동면, 곤명면, 곤양면, 서포면은 과거 昆陽郡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智異山의 여맥이 남으로 뻗어 내리면서 남해안과 연결되면서 동부에 비해 비교적 험준한 지세를 이루고 있다. 둘째, 사천시의 동과 남은 고성군과 남해군이 연결하며 와룡산에서부터 바다에 걸쳐 있고, 서북은 진주시와 하동군이 경계하며 지리산이 뻗어 내린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 평야는 남북으로 발달·전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천시를 흐르는 하천은 덕천·사천·죽천·백천·곤양천 등이 있는데, 이 川들의 인근지역들은 대체로 토양이 비옥하고 구획정리가 잘 이루어져 있고 보편적으로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것을 사천시에 나타나는 지형적 특징인 동·서지형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동부지역은 와룡산에서 발원하는 竹川이 서쪽으로 흘러 사천만으로 유입되며, 와룡산 북쪽으로 흐르는 白川은 사천선상지를 지나 사천만으로 유입된다. 서부지역은 하동군에서 발원하는 곤양강이 남쪽으로 흘러 서포면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의 廣浦灣으로 흘러들면서 인근 유역에 평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川들이 유입되는 사천시의 해안은 남해안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편이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중심기항지이자 이 지역의 수산물 집합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천시의 지질형태는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 조륙 및 침식 그리고 화성활동과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慶尙系地層에 속한다. 지질구조는 사천만의 북쪽을 경계로 동쪽이 下陽層群, 서쪽은 新東層群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쪽은 산지의 佛國寺統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퇴적암층으로는 馬洞層이 곤명의 덕천강 유역에서부터 곤양 목곡리와 환덕리에 걸쳐 삼각형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대는 중생대의 낙동계에 속한다. 사천읍의 서남부는 固結이 안된 礫砂, 泥土 등이 잡다하게 집적된 沖積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²⁾

기후적으로 사천시는 중앙에 깊이 만입되어 있는 사천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난습윤한 난대성기후를 나타내고 있어 인근한 내륙지역보다 대체로 온난한 편이다. 또한 이러한 기후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화한 편에 속해 농·수산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약 14.2℃, 1월 평균기온 1℃, 8월 평균기온 25℃로서 연교차는 크지 않다. 연평균 강수량은 1,400mm로 남부지방의 연평균 강수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대부분 6~8월에 비가 많이 내리는 하계집중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사천시의 교통상 위치를 살펴보면, 사천공항 이외에 육상교통으로는 남해고속도로(부산~순천간)가 서부 중앙을 관통하여 마산·진주·순천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진주~삼천포간의 국도가 동부를 남북으로 지나고 있고, 사천~고성간의 국도가 동남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해상으로는 통영·부산방면과 여수·목포방면으로 항로가 열려 있는 등 대체적으로 공항, 항만, 도로 등의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³⁾ 현재 사천시는 일제시대인 大正 3년(1914)에 군·면통폐합으로 곤명군과, 근래인 1995년 도농통폐합을 통해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합쳐지는 2가지의 큰 행정 변화개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행정구역은 1읍 7면 6洞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대수는 40,027가구에 인구는 117,742명이다.(2002년 통계자료)

2. 사천시의 역사적 환경

(1) 사천시 歷史 概要

2) 泗川市·慶南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泗川市, 2003.

3) 사천시청 <홈페이지 현황자료> 참조.

1) 先史時代부터 三國(百濟·新羅)時代까지

사천시는 기후적·지형적인 요소, 즉 온난습윤한 난대성기후와 동쪽으로 소백산맥이 뻗어내린 지맥과 서쪽으로 지리산에서 이어지는 산지와 사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과 주변의 충적지, 그리고 곳곳에 산재한 해안평야 등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적 요소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이미 역사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생활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는 선사시대의 유적과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굴·조사된 바 있다. 이것은 곧 사회·경제적 활동이 편리하고 유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집단 내지 군락을 형성하여 농경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생산, 축적된 剩餘生産物은 원시·고대사회 형성에 있어 중요한 基底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조사된 바는 없다. 단지 해안단구의 지형적인 요소 등을 감안할 때, 발견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후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 곤양면 중항리, 서포면 구평리패총이 있는데, 그 중 서포 지방의 조개더미에서는 말기의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미 상당한 인구가 이 지역에 산재하며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적들이 발굴·조사되었다. 특히 해안평야지대를 중심으로 곳곳에 청동기시대 유적이 산재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지석묘 입지조건인 충적지대 위 또는 구릉, 강가 또는 강을 굽어보는 야산지대에 상당한 지석묘의 분포가 확인(특히 동부지역)되는 등, 예전부터 이 일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청동기시대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勒島貝塚(사적 제450호)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삼한시대로 이어지는 단계의 삼각형 점토대 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유물과 중국의 오수전 등이 발견·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이 지역은 고대 韓·中·日의 교류관계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었음이 확인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화의 토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청동기시대 이후의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극히 희소하다. 중국의 사서인 『三國志』〈魏書〉東夷傳의 弁辰條 기록과 『三國史記』의 일부기록에 이 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弁辰條의 기록에 의하면 인근한 지역들, 즉 지금의 진주지역이 弁辰 12국 중의 하나인 ‘古淳是國’으로, 하동지역이 ‘樂奴國’으로, 고성지역이 ‘古資彌凍國’으로 비정되고 있는 점과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에도 비록 당시대는 그 세력이 작거나 미약했지만 邑落이나 部族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三國史記』의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남에서 전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의 해양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해양문화 집단인 ‘浦上八國’의 존재이다. 이 포상팔국은 그 세력이 전 남해안까지 뻗었으며, 당시 농경사회를 바

탕으로 발전하던 가야연맹체나 신라와도 충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포상팔국이 이 당시 이미 상당한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三國史記』에 이 浦上八國과 가야·신라의 대립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⁴⁾) 여기서 특히 이 8國 중 현재 그 지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곳이 4國인데,⁵⁾ 지금의 사천지역 인근이 그 중 하나로 보이는 ‘史勿國’으로 비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상팔국에 대한 기록은 신라와의 竭火城 전투 이후 문헌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전쟁 후 상당한 타격을 입어 그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였거나 멸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馬韓을 비롯한 弁辰韓 등 삼한의 통폐합 성장과정을 거쳐 삼국시대가 고착되는 시기에 이르러 신라나 백제의 권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2) 統一新羅에서 近·現代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한 포상팔국의 하나였던 史勿國 이후, 그리고 삼국통일이전까지의 사천지역에 대해서는 史料에 별다른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입지적인 위치로 인하여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가 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백제의 강성기 때는 백제의 권역에 속했던 적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다가 신라 法興王代에 이르러서 완전히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다.(당시 지금의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史勿縣’과 서부지역에 해당하는 ‘昆明縣’은 별개의 지역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사천관련 기록은 『三國史記』 <地理志>의 固城郡條이다. 여기에 의하면, 본래 이름은 史勿縣이었는데, 신라 景德王 16년(757) ‘9州 5小京’의 행정구역의 실시와 함께, ‘泗水縣’으로 개칭하고, 당시 고성군의 領縣으로 삼았다고 한다.⁶⁾ 이후 별다른 행정개편은 보이지 않는다.

후삼국의 분열을 재통일한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먼저 신라의 泗水縣을 진주목으로 이속하였으며, 서부의 곤양지역은 신라시대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太祖 23년(940)에 ‘昆明縣’으로 명칭이 개칭되었다.⁷⁾ 그리고 成宗 14년(995)에 12牧을 ‘12州 節度使’로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하게 되는데, 이때 진주지역에는 전국 10도 중의 하나인 ‘山南道’가 설치되어, 당시의 사수현을 비롯한 10州 37縣을 소관하게

4)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三國史記』 卷四十八 <列傳>第八 勿稽子條 참조.

5)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인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에 나뉘어져 있었던 소국가들로 8개의 국가 중에서 그 위치가 비정된 곳이 4곳이다. 이를 살펴보면 골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사물국으로 지금의 마산만, 진동, 고성, 사천에 각각 해당하고 있다.

6)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참조.

7)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참조.

하였다. 이후 顯宗 6년(1015)에 ‘泗州’로 개칭되었으며, 同王 9년(1018)에 곧명현은 하동군에서 진주목으로 예속되어 嶺縣이 되었다. 그리고 明宗 2년(1172)에는 비로소 監務가 설치되었다.⁸⁾ 고려말기에 이르러 남해안 및 내륙지방에 왜구의 약탈이 심하였는데, 특히 사천지역은 그 침입로가 되어, 禡王 5년(1379)과 그 이듬해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恭讓王 4년(1392)에는 구라섬에 침입한 왜구를 만호 李興仁이 격파하고 전함을 노획하여 나라에 바쳤다고 한다.⁹⁾

그리고 고려시대는 이러한 행정개편의 사실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成宗 때에 조세미의 수송을 위하여 전국에 12漕倉을 두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通陽倉이 사천현의 남쪽 通潮浦(지금의 용현면 선진리)에 설치되었던 점이며, 이때 삼천포란 지명은 통양창이 개성에서 수로 3,000리나 되는 먼 곳이라 하여 생겨났다고 한다. 다음으로 고대 韓·中·日 문화교류의 중요한 교역을 담당하였던 녹도에 관한 사실이다. 이 섬의 본래 이름은 仇羅島였는데, 현재 동서동과 이 녹도 사이의 좁은 해협을 仇羅梁이라 불렀으며, 여기에 水軍萬戶營이 있다가 고성현 사량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그 존재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海防上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지역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成宗 11년(992)에 현종의 아버지였던 安宗 郁이 사수현으로 유배되어 排房寺(지금의 정동면)에서 일생을 마쳤고, 顯宗도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지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개국 초인 太宗 13년(1413)에 비로소 지금의 이름인 泗川으로 고치고 현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同王 15년(1415)에는 鎭을 두어 병마사가 縣政을 겸장하게 하였다. 世宗 때에는 병마첨절제사를 두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고려말 이래 이 지방이 왜구의 침입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¹⁰⁾ 한편 곧명현의 경우, 世宗 元年(1419)에 왕의 御胎를 현의 북쪽에 위치한 所谷山에 안치하면서 당시의 남해현을 來屬하여 이 지역을 昆南郡으로 승격하였다. 그러다가 사천지역이 世宗 24년(1442)에 다시 현으로 환원되면서 현을 古邑에서 현재의 사천읍으로 이전하고, 읍성을 축성하였으며 관아를 신축하였다.¹¹⁾ 端宗 2년(1454)에 편찬된 『世宗實錄』 <地理志>에 의하면, 조선전기에 사천현의 호구수는 370호에 인구는 1,817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곧남군의 호구수는 271호에 인구는 1,300명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世宗 19년(1437)에는 곧남군에서 남해현을 다시 복구하면서 진주목의 金陽部曲을 편입하여 昆陽郡으로 개칭하였다. 成宗 19년(1488)에 이르러 三千鎭을 설치하고 진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1,440척, 높이

8)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참조.

9) 『高麗史』 卷四十六 <世家>第四十六 恭讓王 二年 四月 丁丑條.

倭寇慶尙道仇羅島 萬戶李興仁擊破之獲戰艦 以獻賜米二十石 興仁曰 是豈臣之獨力耶 盡爲酒以飲士卒.

10) 『世宗實錄』 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晋州牧.

11) 『世宗實錄』 二十四年 七月 二十日 戊寅 참조.

가 15척으로 기록되어 있다.¹²⁾ 조선중기인 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李舜臣이 이끄는 수군이 사천 해안에 있는 왜군을 전멸시켰는데, 이것이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전에 참여해 전과를 올린 사천해전이다.(5월 29일) 이후 조선후기까지도 행정체제의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英祖 35년(1759)의 통계자료를 보면, 당시 사천현의 호구수가 3,313호에, 인구가 14,620명이었으며, 곤양군의 호구수는 3,759호에 인구는 16,37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선전기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후 조선말기인 高宗 32년(1895)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하여 사천현이 진주부의 泗川郡이 되었고, 창선면이 남해군으로, 문선면이 진주군으로, 남양면이 고성군으로 분속되었다. 그리고 光武 10년(1906)에는 다시 남양·문선·축동의 3면이 사천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인 1914년에 군·면통폐합으로 곤양군을 사천군에 통합하면서 금양면과 서면을 하동군에 이관하였고, 삼천리면을 수남면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1918년에는 수남면과 문선면을 합하여 삼천포면을 설치하였다.(1931년 읍으로 승격) 해방이후인 1956년 삼천포읍과 남양면이 통합되어 삼천포시로 승격하였고, 사천면은 읍으로 승격되었다.(행정체제는 1읍 7면으로 편제되었다) 이 이후 행정개편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약간의 통폐합만을 거치다가, 1995년에 이르러 도농통폐합으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되어 사천시로 개칭하였고, 1읍 7면 6동으로 개편되었다.

(2) 사천시 역사관련 文獻資料

이상에서 언급한 사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곤명현 등) 역사를 文獻資料로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史料 1 :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중략)…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하략).¹³⁾

史料 2 :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奈解尼師今 14年

12) 『成宗實錄』 卷二百二十三 十九年 十二月 己未條.

是月 築慶尙道泗川縣三千鎮城 高十五尺 周一千四百四十尺.

13)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傳.

弁辰亦十二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중략)…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하략).

奈解尼師今 14년(209) 가을 7월, 바닷가의 여덟 나라가(浦上八國) 연합하여 가라를 공격하니, 가라는 신라에 왕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于老와 이별찬 利音에게 명하여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은) 출격하여 8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 6천여명을 잡아 돌아왔다.¹⁴⁾

史料 3 :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본래 古自郡인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쳐 지금 그대로 따른다. 영현이 셋인데, 蚊火良縣은 지금 알 수 없다. 泗水縣은 본래 史勿縣인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泗州이다. 尙善縣은 본래 一善縣인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영선현이다.¹⁵⁾

史料 4 : 『三國史記』 卷48 <列傳>8 勿稽子

(상략)……그 뒤 3년이 지나서 骨浦, 柒浦, 古史浦 등 3국이 竭火城을 공격하였는데 왕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구원하였다. 3국의 군대는 크게 패하였다……(하략).¹⁶⁾

史料 5 : 『高麗史』 卷57 <志> 第11 地理2

泗州는 본래 신라 史勿縣이다. 景德王이 泗水로 이름을 고쳐서 고성군의 領縣이 되게 하였다. 고려 초에 來屬하여 顯宗 2년(1011)에 지금의 이름(泗州)으로 고쳤고, 明宗 2년(1172)에 감무를 두었다.¹⁷⁾

史料 6 : 『高麗史』 卷57 <志> 第11 地理2

昆明縣은 신라 때의 명칭은 알 수 없고, 顯宗 9년(1018)에 來屬하였다.¹⁸⁾

史料 7 : 『世宗實錄』 卷150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泗川縣

본래 史勿縣인데, 景德王이 泗水로 이름을 고쳐서 固城郡의 領縣을 삼았다.

14)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二 奈解尼師今 十四年.

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漁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15)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本古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蚊火良縣 今未詳 泗水縣本史勿縣 景德王改名 今泗州 尙善縣本一善縣 景德王改名 今永善縣.

16) 『三國史記』 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

(상략)……後三年 骨浦 柒浦 古史浦 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하략).

17)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泗州 本新羅史勿縣 景德王改名泗水 爲固城郡領縣 高麗初來屬 顯宗二年更今名 明宗二年置監務.

18)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昆明縣 新羅時稱號未詳 顯宗九年來屬.

고려 초에晉州의 壬內로 붙였는데, 顯宗 辛亥年(1011)에 泗川으로 고쳤으며, 明宗 壬辰年(1172)에 비로소 監務를 두었다. 本朝에서는 그대로 따랐다가 太宗 13년 癸巳(1413)에 例에 의하여 泗川縣監으로 고쳤고, 乙未年(太宗 15년, 1415)에 비로소 兵馬使 兼 判縣事를 두었다. 今上 5년 癸卯(1423)에 兵馬僉節制使로 이름을 고쳤다. [4품은 同僉節制使라 일컫는다]…(중략)…호수는 370호, 인구는 1,817명이다……(하략).¹⁹⁾

史料 8 : 『新增東國輿地勝覽』卷31 <泗川縣>

동쪽으로 固城縣 경계까지 23리이고, 남쪽으로 晉州 경계까지 25리이며, 서쪽으로 같은 州 경계까지 5리이고, 북쪽으로도 같은 州 경계까지 6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973리이다.

[建置沿革] 본래 신라 史勿縣이다. 景德王이 泗水라 고쳐서 고성군에 예속시켰고, 고려 초에는 진주에 이속시켰다. 顯宗이 泗州라 고쳤고 明宗이 감무를 두었다. 본조 太宗祖에 지금 이름(泗川縣)으로 고쳐서 현감으로 만들었다가 뒤에 진을 두어 병마사 겸 관현사를 두었다. 世宗祖에는 병마첨절제사라 개칭하였고, 그 뒤에 다시 현감으로 고쳤다.

[郡名] 史勿·泗水·泗州·東城이다.²⁰⁾

史料 9 : 『新增東國輿地勝覽』卷31 <昆陽郡>

[建置沿革] 본래 고려 昆明縣이며, 신라 때 칭호는 자세하지 않다. 고려 顯宗이 진주에 예속시켰고, 本朝(조선) 世宗 元年(1419)에 군의 북쪽 所谷山에 御胎를 안치하고, 남해현을 합쳐서 昆南郡으로 승격하였다. 同王 19년(1437)에 다시 갈라서 남해현을 설치하고, 진주 金陽部曲을 내속시켜서 지금 이름(昆陽郡)으로 고쳤다.

[郡名] 昆明·昆南·鐵城·昆山이다.²¹⁾

19) 『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本史勿縣 景德王改名泗水 爲固城郡領縣 高麗初 屬晉州任內 顯宗辛亥 改爲泗川 明宗壬辰 始置監務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泗川縣監 乙未始置兵馬使 兼判縣事 今上五年癸卯 改稱兵馬僉節制使 [四品稱同僉節制使] …(중략)…戶三百七十 口一千八百十七……(하략).

20)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一 <泗川縣>.

泗川縣 : 東至固城縣界二十三里 南至晉州界二十五里 西至同州界五里 北至同州界六里 距京都九百七十三里.

[建置沿革] 本新羅史勿縣 景德王改泗水 屬固城郡 高麗初屬晉州 顯宗改泗州 明宗置監務 本朝太宗朝 改今明爲縣監 後置鎮以兵馬使兼判縣事 世宗朝改稱兵馬僉節制使 後改縣監.

[郡名] 史勿·泗水·泗州·東城.

21)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一 <昆陽郡>.

[建置沿革] 本高麗昆明縣 新羅時稱號未詳 顯宗屬晉州 本朝世宗元年 安御胎于郡北所谷山 以南海縣來合陞爲昆南郡 十九年復析置南海縣 以晉州金陽部曲來屬改今名.

[郡名] 昆明·昆南·鐵城·昆山.

史料 10 : 『增補文獻備考』卷16 <輿地考>4 郡縣沿革2

(상략)……[晉州府] 진주·고성·진해·사천·곤양·남해·단성·산청·하동·거창·안의·함양·함천·초계·삼가·의령·칠원·함안·창원·웅천·김해의 21郡을 관할하였다……(하략).²²⁾

史料 11 : 『增補文獻備考』卷17 <輿地考>5 郡縣沿革3-慶尙道

경상도는 본래 辰國의 땅인데, 뒤에 북쪽은 辰韓이 되고 남쪽은 弁韓이 되었다. 신라에서 두 韓의 땅을 아울러 차지하고 삼국을 통합한 뒤 尙州·良州·康州의 3州를 두어 郡縣을 나누어 관할하였다…(중략)…고려에서는 3州를 합병하여 慶尙道라 하였으며, 本朝(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중략)…晉州·昆陽…(중략)…泗川…(중략)…右道에 속하였다……(하략).²³⁾

[표1-1] 泗川 관련

진·진한	기록 없음.
新羅	○ <泗水縣> : 본래 史勿縣이다.
高麗	○ <泗州> : 초기에 진주에 편입시켰다가 顯宗 때 泗州로 고치고 明宗 때 현으로 삼았다.
朝鮮	○ <泗川郡> : 太宗朝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현으로 삼았으며, 고종 32년(1895)에 군으로 고쳤다.

22) 『增補文獻備考』卷十六 <輿地考>四 郡縣沿革二.

(상략)……[晉州府] 諸晉州 固城 鎭海 泗川 昆陽 南海 丹城 山淸 河東 居昌 安義 咸陽 陝川 草溪 三嘉 宜寧 漆原 咸安 昌原 熊川 金海 二十一郡……(하략).

23) 『增補文獻備考』卷十七 <輿地考>五 郡縣沿革三-慶尙道.

慶尙道 本辰地 後北辰韓南爲弁韓 新羅併有二韓地 統合三國後 置尙良康州分領郡縣…(중략)…高麗併三州爲慶尙道 本朝因之…(중략)…晉州·昆陽…(중략)…泗川…(중략)…屬右道……(하략).

[표1-1] 泗川 관련

新羅 : 本史勿縣.

高麗 : 初入晉州 顯宗改泗州 明宗爲縣.

朝鮮 : 太宗朝改今名爲縣 高宗三十二年 改爲郡.

[표1-2] 곤명 관련

新羅 : (기록 없음).

高麗 : 顯宗入晉州.

朝鮮 : 世宗元年合南海陞爲昆南郡 十九年復析置 以晉州金陽部曲併入改今名.

高宗三十二年 入泗川更復置郡.

[표1-2] 昆明관련

진·진한	기록 없음.
新羅	기록 없음.
高麗	○ <昆明縣> : 顯宗 때 진주에 편입시켰다.
朝鮮	○ <昆陽郡> : 世宗 元年(1419)에 남해와 합하고 승격시켜 昆南郡으로 삼았다가 동왕 19년(1437)에 다시 나누어 설치하고, 진주의 金陽部曲을 편입시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高宗 32년(1895)에 泗川에 편입시켰다가 곧 다시 군을 설치하였다.

史料 12 : 『燃藜室記述』別集 卷16 <地理典故> 州郡

泗川 : 성이 있다. 신라 때 史勿縣이라고 하다가 泗水로 고쳤으며, 고려 때에 泗州로 고쳤다. (조선)太宗 때 泗川縣으로 고쳤다가 뒤에 진을 설치하였다. 僉使로 삼았다. 뒤에 다시 현으로 고쳤다. 東城이라고도 한다. 8개 面이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는 886리이다.²⁴⁾

史料 13 : 『慶尙道邑誌』<泗川縣>

[建置沿革] 본래 신라 史勿縣이다. 景德王이 泗水라 고쳐서 고성군에 예속시켰고, 고려 초에는 다시 진주에 이속시켰다. 顯宗이 泗州라 고쳤고, 목사를 두었으며, 明宗이 감무를 설치하였다. 본조(조선) 太宗祖에 泗川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가, 뒤에 진을 두어 병마사 겸 관현사를 두었다. 世宗祖에는 병마첨절제사라 개칭하였고, 그 뒤에 다시 현감으로 고쳤다.

[郡名] 史勿·泗水·泗州·泗川이고, 다른 이름으로 東城이라 하였다.

[戶口] 元戶 3,313호에, 人口는 남녀 모두 14,620명이다.²⁵⁾

史料 14 : 『嶺南誌』卷56 <泗川郡>

[沿革] 본래 신라의 史勿縣이었는데, 景德王이 泗水로 고쳐서 固城郡에 예속시켰다. 고려에는 처음에 진주에 예속되었는데, 顯宗이 泗州로 고쳤다. 明宗 때 監務를 설치하였으며, 李朝(조선) 太宗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뒤에 鎭을 설치하고 兵馬使가 判縣을 겸해서 다스리게 하였다. 世宗 때 고쳐 兵馬僉節制使로 부르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高宗 建陽 元年

24) 『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六 <地理典故> 州郡.

泗川 有城 新羅史勿縣 改泗水 高麗改泗州 太宗改爲泗川縣 後置鎭 爲僉使 後改縣 東城 八面距京都八百六十六里.

25) 『慶尙道邑誌』<泗川縣>.

[建置沿革] 本以史勿縣 新羅景德王改泗水屬固城郡 高麗初復屬晉州 顯宗改號泗州牧使 明宗置監務 本朝 太宗朝改泗川爲縣監 後置鎭以兵馬使兼判縣使 世宗朝改稱兵馬僉節制使 復改爲縣監.

[郡名] 史勿·泗水·泗州·泗川 別號東城.

[戶口] 元戶三千三百十三戶 人口男女并一萬四千六百二十口.

(1896) 郡으로 만들었다……(하략).

[郡名] 史勿·泗水·泗州·東城·泗川이다.

[戶口] 戶數는 28,520호이며, 人口는 77,806인이다.²⁶⁾

史料 15 : 『嶠南誌』 卷58 <昆陽郡>

[沿革] 본래 고려의 昆明縣으로 신라 때 명칭은 알 수 없다. (고려) 顯宗 때 진주에 예속되었다가 李朝(조선) 世宗 元年(1419)에 군의 북쪽 所谷山에 御胎를 안치하고 남해현과 합쳐 승격시켜 昆南郡으로 만들었다. 19년(1437) 다시 그 땅을 나누어 남해현을 설치하고, 진주의 金陽部曲을 예속시켜 지금의 명칭으로 하였다…(중략)…大正 3년(1914)에 사천과 하동의 2군에 나누어 예속시켰다.

[郡名] 昆明·昆南·鐵城·昆山·昆陽이다.²⁷⁾

이상의 사료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천일대는 고대 삼한시대의 소국이자 포상팔국의 하나였던 史勿國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그 역사가 상당히 유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췌된 史料들은 이후의 행정개편 등의 역사적 사실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시대에 따른 변화 및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3. 조사대상지역 개관

현재의 사천시는 조선말기 사천현과 곤양군을 중심으로 하고 진주목의 두 면을 합하여 이루어진 곳으로, '1읍 7면 6洞'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다.²⁸⁾ 이 중 금번 조사대상은 '사천시 남일대유원지 개발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사해당지역의 위치는 '향촌동 산49-1임 일원'이며, 조사대상 면적은 20,739㎡ (약 6,913평)이다. 조사지역은 남일대 해수욕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독립된 구릉으로 조사지역은 대체로 원래의 지형이 잘 남아 있으며, 바다로

26) 『嶠南誌』 卷之五十六 <泗川郡>.

[沿革] 本新羅史勿縣 景德王改泗水屬固城郡 高麗初屬晉州縣 顯宗改爲泗州 明宗置監務 李朝太宗改今名爲縣監 後置鎮以兵馬使兼判縣事 世宗改稱兵馬僉節制使 後改縣監 高宗建陽元年改爲郡……(하략).

[郡名] 史勿·泗水·泗州·東城·泗川.

[戶口] 戶數 二萬八千五百二十戶 人口 七萬七千八百六人.

27) 『嶠南誌』 卷之五十八 <昆陽郡>.

[沿革] 本高麗昆明縣 新羅時稱號未詳 顯宗屬晉州 李朝世宗元年 安御胎于郡北所谷山 以南海縣來屬陸爲昆南郡 十九年復析置南海縣 以晉州金陽部曲來屬改今名…(중략)…大正三年 分屬于泗川河東二郡.

[郡名] 昆明·昆南·鐵城·昆山·昆陽.

28) 통합 사천시의 면단위 행정구역명 변천관련은 『경상남도 연구』의 도표(p,39)에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면 된다.(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향한 조망이 유리하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사람이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생활유적이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지리적으로 香村洞은 사천시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고성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동서금동과 벌용동과 접하고 있다. 지역적인 특성은 도·농·어촌 병합지역으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근접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변전소 등이 있으며, 항공기능대학 및 신항만 조성으로 신흥개발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는 매향암각(도유형 문화재 제288호, 향촌동 산 46-1번지)이 있다. 곤양면 홍사리 매향비(보물 제614)와 동일한 불교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미륵신앙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조선 太宗 18년(1418)에 승려와 신도들이 이곳에 매향하고 그 내용을 암각한 것이다. 관광, 휴양지로는 조사대상지역 인근에 남일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남일대 코끼리바위가 유명하다. 신라 말의 대학자였던 고운 최치원이 남녘에서 제일 경치가 좋아 ‘南逸臺’라고 이름을 지었고, 코끼리가 물을 먹는 듯한 형상인 코끼리바위(象頭鼻岩)라 불렀으며, 서부경남의 유일한 조개껍데기 모래의 해수욕장이다. 또한 삼천포 8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진널전망대가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어 여름철 많은 피서객의 휴양지가 되고 있다. 행정구역상 6개의 법정동과 19개의 자연마을이 있고, 면적은 12.15km²이며, 가구수는 2,301세대에 인구는 6,376명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원래 삼천포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써 고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까지 史勿·泗水縣 지역의 일부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와 관련된 확실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은 泗川縣 南面 三千里 지역에 속하였으며, 이후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큰 행정개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인 純祖 32년(1832)에 이르러 三千里面에 속하였는데, 『輿地圖書』 <泗川> 坊里條에 의하면, 지금의 향촌동이 속한 삼천리면의 위치가 “관문으로부터 40리 쯤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⁹⁾ 이후 조선말기인 高宗 32년(1895) 泗川縣이 郡으로 개편될 때 수남면에 편제되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 때 수남면의 중향동·하향동·벌리동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수남면 향촌리’가 되었다. 이후 1918년 수남면과 문선면을 합하여 삼천포면으로 개편될 때 향촌리가 되었다가, 1931년 삼천포면이 읍으로 승격될 때 비로소 ‘향촌동’으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1937년 경)에 편찬된 『嶠南誌』 <泗川郡> 邑面里條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삼천포읍에는 香村里를 비롯한 19개의 里들이 나타나 있다.³⁰⁾ 해방이후, 현대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6년 삼천포가 시로 승격될 때 향촌동 1구와 2구

29) 『輿地圖書』 <慶尙道> 泗川 坊里條.
(상략)……三千里面 距官門四十里……(하략).

30) 『嶠南誌』 卷之五十六 <泗川郡> 邑面里條.
(상략)……東里 西里 仙龜里 大芳里 實安里 勤島里 馬島里 新樹島里 東錦里 西錦里 香村里 宮旨里 耳笏里 梨琴里 鳳西里 臥龍里 龍江里 闕里 東林里

로 분리되었다가, 1966년 행정개편으로 다시 합쳐져 향촌동으로 되었다. 1995년 이궁사동이 분리될 때, 이홀동과 궁지동은 봉이동으로 사등동은 향촌동으로 편입되었고, 1998년 동서금동 일부와 벌용동 일부가 향촌동으로 편입 같은 해 9월 봉이동과 향촌동이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4. 주변유적

(1) 埋香岩刻(사천시 향촌동 산 64-1번지)

향촌동 하향마을에서 하향천의 건너편 향포산의 북서 사면 6부 능선상에 위치한다. 6.6×4.5m의 자연암석이 수직암면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암면의 하단 1.4×0.8m 범위내에 23행 174자의 음각으로 된 해서체의 명문이 있다.

비문에는 太宗 18년(1418)에 승려와 신도들이 이곳에서 매향의식을 행했다는 사실과 승려와 여러 신도들이 丁酉年(1417), 戊戌年(1418) 2월 15일에 수륙무차대회를 베풀고 침향의식을 거행한 후, 이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 매향 의식은 관민과 승려가 공동으로 행한 불사로서의 대중행사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향촌동 유물산포지 I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북서쪽으로 100m 떨어진 독립구릉의 남동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계단식 밭과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기편과 옹기편이 확인된다. 현재 이곳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주변으로 민가가 들어서 있다. 지표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3) 향촌동 유물산포지 II

사천에서 고성으로 가는 1010번 도로 우측변의 구릉 사면에 산포지가 위치한다. 이곳에서 도기편과 옹기편이 확인되며, 지표상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이곳은 개간을 하여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민가가 들어서 있다.

(4) 향촌동 金海金應奉孝行碑(사천시 향촌동 산 52-1번지)

이 비는 사천-고성간 77번 국도변에 위치한다.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향촌동 김공효행비와 함께 있는데, 이수와 비신은 하나의 석재로 조각되어 있다. 이수는

반원형이며, 오각형의 모티브 3개가 장식되어 있다. 정면에는 화문이, 후면에는 저울을 상징하는 표현이 있다. 비신의 정면에는 孝子士人金海金公諱應奉之碑라는 비문이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으며, 비석의 양측면과 후면에도 비문이 음각되었었다. 비신의 측면에는 檀紀四千二百八十年下軒歲在丁亥六月이라는 명문이 있어 1847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좌를 제외한 현재 높이는 167cm , 비신 높이는 129cm, 폭 51.74cm, 두께 19.0cm 이다.

(5) 향촌동 金公孝行碑(사천시 향촌동 산 52-1번지)

이 비는 사천-고성간 77번 국도 도로변에 위치한다. 金海金應奉孝行碑의 좌측에 위치하는데 비신만 남아있다. 비신의 정면과 양측면, 그리고 후면에는 해서체로 비문이 음각되어 있다. 지대석의 주위는 시멘트로 채워져 있어 정확한 높이를 알 수 없다. 비신 높이 93.7cm, 폭 29cm , 두께 16cm 이다.

(6) 사등동 고분군

사등동 모래골 남사면에 위치하며, 현재 계단식 밭과 과수원으로 개간된 경작토에서 삼국시대의 타날된 경질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밭 축대에서도 석곽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들이 흩어져 확인되었다.

(7) 사등동 토기산포지

사등동 모래골 북사면에 위치한다. 현재 계단식 밭과 과수원으로 개간된 경작토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확인되었고, 일부 기와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8) 사등산성(사천시 사등동 산 38-1번지)

사등산은 일명 산성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표고가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해안에 접해 있어 신수도와 덕호리 일대가 한눈에 조망된다. 남쪽은 급경사의 바위로 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주위가 만으로 되어있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축성연대는 명확치 않으나 임진왜란때 왜군들이 본국으로 철수하기 위해 이곳에서 배를 기다리며 농성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둘레 500m, 높이 약 2m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이 붕괴되어 흔적만 약

간 남아있다.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은 경남 사천시 향촌동 산 49-1번지 일원이다. 이 지역은 2003년 (재)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삼각형점토대토기편 및 자기편과 용기편이 수습되어 초기철기시대~조선시대 유물산포지임이 확인된 곳과 인접한 지역이다. 조사대상지역은 남일대 해수욕장과 맞닿은 곳으로 해안가에는 민박촌이 들어서 있으며, 삼천포 시내로 연결되는 동서 방향의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우리 조사단은 조사구역을 A, B, C, D의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재)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구역과의 경계지역인 구릉의 8부 능선에서 정상부로 연결되는 부분을 A구역, 조사지역의 북쪽 및 북서쪽인 688번지 일대를 B구역, 중간부분은 C구역으로, 그리고 민박촌이 들어서 있는 해안도로 아래 부분 및 방파제와 다리가 연결된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D구역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A구역은 (재)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2003년도 지표조사한 산49-11의 능선 상부에 위치한 구간으로 산의 능선을 따라 角山으로 연결되는 등산로와 소곡부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개장 공고된 민묘 12기가 있다. 지표상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B구역은 조사지역의 북쪽 및 북서쪽 상단부에 해당하며, 구릉의 말단부로 연결되는 곳에는 콩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경작을 위하여 원지형을 절개하면서 형성된 단애면의 20m 아래에서 자연암반을 확인하였고,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C구역은 조사대상구역의 중간 지점인 산 38-6번지 일대로서 현재 연고묘 8기가 확인된다. 이 지역은 바다로 향한 조망이 유리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사람이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구릉의 아래로는 해안 절벽으로 연결되어 있어 매향암각이나 각석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밀조사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고, 지표상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D구역은 조사대상구역의 남쪽 부분에 해당되며, 동-서방향의 해안도로가 지나가고, 도로 아래 부분에 오래전부터 민박촌이 들어서면서 원지형은 이미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지표상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IV. 조사단 의견

금번 조사지역은 경남 사천시 향촌동 산49-1번지 일원으로 이곳은 남일대 해수욕장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삼천포의 중심을 이루는 角山의 구릉과 맞닿는 곳이다.

조사대상지역의 해안가는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위한 민박촌이 들어서 있고, 구릉의 끝자락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최근에 조성된 연고묘가 있으며, 개간이 가능한 구간에는 일부 절토하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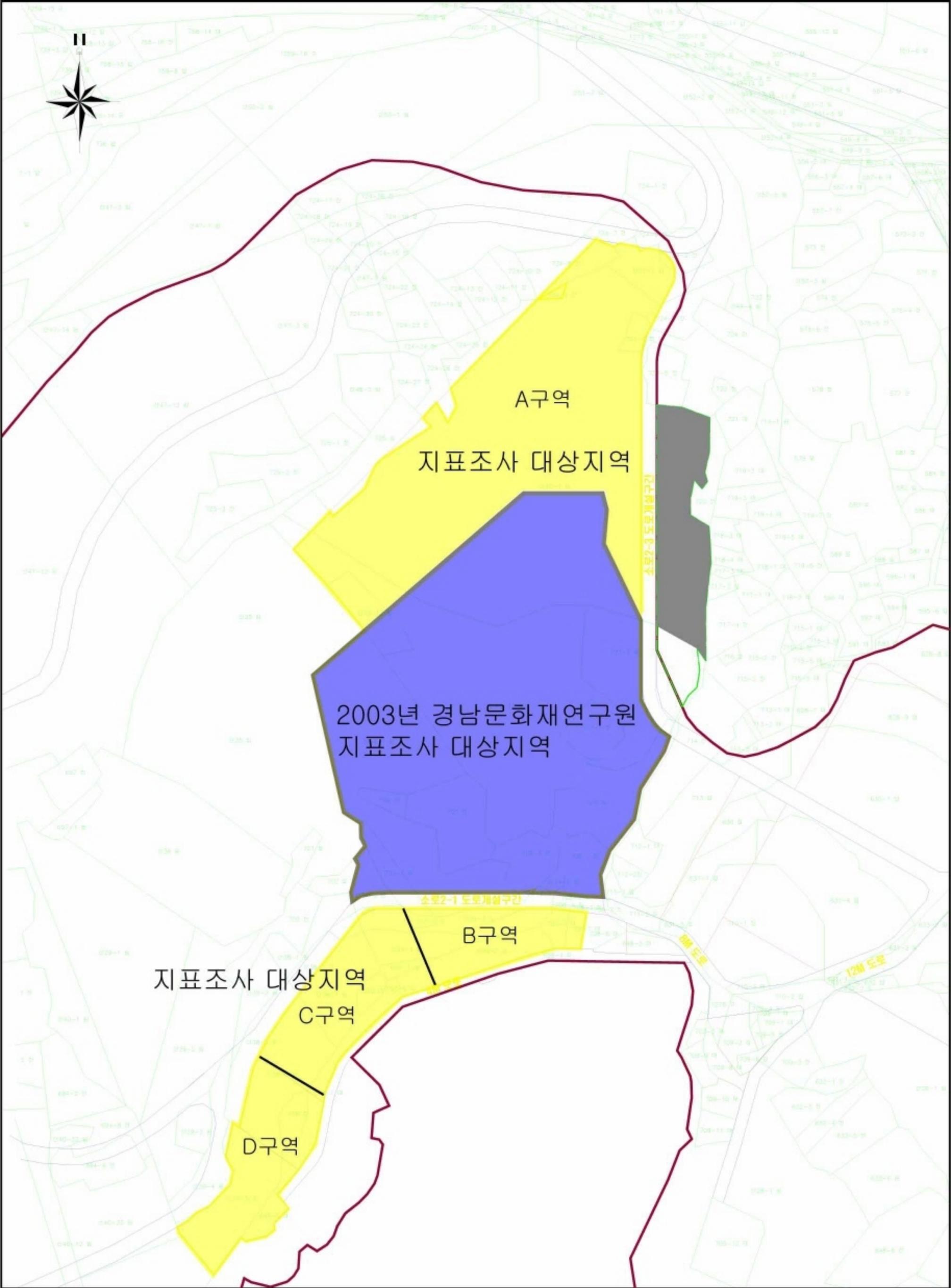
조사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하여 2003년 (재)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각형점토대토기편 및 자기편과 용기편이 수습되어 초기철기시대 및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번 조사지역 또한 (재)경남문화재연구원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리조트 건설지역의 확장구간으로 (재)경남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내용과 관련된 유적이 유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조사지역에는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파른 경사면 정상 아래 지점으로 인해 자연입지조건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인간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을 이룬 곳이다. 다만, 근·현대에 해당되는 연고묘 등 분묘로 조성되어 있는 것만 확인될 뿐 이렇다 할만한 문화유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지표상 특이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사 시행중에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復刻本)
『世宗實錄』〈地理志〉
『文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增補文獻備考』
『燃藜室記述』
『嶠南誌』
『三國志』〈魏書〉 東夷傳

강영환, 『한국의 건축문화재』-경남편, 기문당, 1999.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1997.
권상노, 『韓國地名沿革辭典』, 이화문화출판사, 1994.
곤양향토사편찬위원회, 『昆陽郷土史』, 2004.
白種伍·金炳熙·申泳文, 『韓國城郭論著總攬』, 서경, 2004.
泗川文化院, 『泗川の 文化遺蹟』, 1997.
泗川市史編纂委員會, 『泗川市史』, 2003.
泗川市·慶南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泗川市, 2003.
심봉근, 『韓國南海沿岸城地の 考古學的 研究』, 學研文化社, 1995.
안장현·이상해, 『書院』, 열화당, 1999.
田溶新, 『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5.
韓國古代史研究會 편,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慶尙南道民俗集』,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화수첩』, 역민사, 200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편,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上)·(下)』, 1999.



도면 3. 조사대상지역 지적도(1/2,000)

圖 版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동→서)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남→북)



도판 3. 조사대상지역 전경(서→동)



도판 4. 조사 광경(서→동)



도판 5. 조사대상지역 부분 전경(서→동)



도판 6. 조사대상지역 부분 전경(동→서)

(財)東亞文化研究院 地表調査報告 第32輯
사천시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5년 8월 10일
발 행 일 / 2005년 8월 11일

編輯·發行 / (財)東亞文化研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4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
